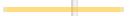




#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통역 불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nxiety of Advanced Korean Learners in Interpretation settings

서울대학교/양길류(한국어교육학과)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01

PART 01 서론



# 연구 문제



1.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통역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양상**이 어떠한가?
2.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통역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인가?

# 연구의 배경

**외국어 불안**(Foreign Language Anxiety, FLA)은 일반적으로 말하기, 듣기, 그리고 학습을 포함한 제2언어 맥락과 특별히 관련된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MacIntyre & Gardner, 1994:284). 이는 **학습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학습자의 언어 학습 및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어 교육 및 제2언어 교육의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Horwitz(1986)가 외국어 학습 불안을 정의한 이래로 이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을 다룬 연구는 2003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으며, 아직 양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한혜민·안정민, 2019).



# 연구의 배경

기술별로 봤을 때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등 네 가지 기술 중에 말하기 불안에 관련된 연구가 제일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말하기 불안을 넘어서 특수 상황의 말하기, 예를 들어 발표 불안(윤소연, 2018), 토론 불안(한하림·이지혜, 2018)을 조사한 연구도 몇몇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의 측정 도구를 활용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언어 기술별 불안을 측정하고 불안의 수준이 학습자의 성취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조사하거나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어 불안



# 연구의 필요성

위에 제시된 선행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에 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질적 연구**의 대표적 연구 유형인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방법(신경림 외, 2004)이다.





# 연구의 필요성

01

통(번)역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이민우, 2012) 외국어로 배우는 모든 학습자는 그 외국어를 자유롭게 통(번)역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때문이다(최권진, 2006).

02

통역은 통역자가 발화자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 단계와 수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그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표현 단계로 구성되는 매우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모어가 아닌 한국어에서 의미적 또는 형태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 긴장감과 불안감 등이 필연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

03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내용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서 통(번)역 교육을 한국어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켰고, 통(번)역 능력을 한국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고급 언어 기능으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 연구의 문제

1.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통역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양상이 어떠한가?
2.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통역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인가?

통번역대학원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통(번)역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 통역사 X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통(번)역 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



0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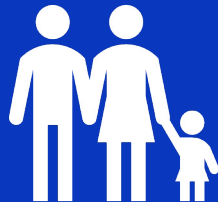
# 외국어 불안



외국어 불안



외국어 불안을 다른 유형의 불안(예를 들어 성향 불안, 시험 불안, 의사소통 불안)이 **외국어 맥락에서 발생하는 전이**(transfer)이다.



외국어 불안을 **특정 상황 불안**이다.

# 외국어 불안

외국언 불안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기간에 따라 일관되게 발생하는 독특한 불안 형태’(MacIntyre & Gardner, 1991:91)이다. 이는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CA), 부정적 사회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social evaluation)과 시험 불안(test anxiety) 이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Horwitz 외, 1986:128). 일반적으로 외국어 불안이 학습자의 언어 학습 및 사용에 끼치는 영향은 촉진적 불안(facilitation anxiety)과 저하적 불안(debilitating anxiety)으로 나눌 수 있다(Alpert & Haber, 1960).

외국어 불안을 하나의 특정 상황 불안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 유형의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 역시 필요해 졌다. 그 중에서 제일 널리 받아들여진 외국어 불안 측정 척도는 바로 Horwitz 외(1986)에서 제시한 외국어 교실 불안 척도(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 FLCAS)이다. FLCAS는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 정도를 평가하고 외국어 불안이 외국어 학습의 특정 형태인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 척도이다. 이후 주로 교실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불안감이 그의 정도에 따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거나, 불안감과 L2 성취 구성 요인(예를 들어 자신감, 의사소통 의지, 동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 언어 기술별 불안

MacIntyre & Gardner(1991)는 언어 학습자들은 언어 수업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별로 외국어 불안을 조사하는 것은 외국어 불안에 접근하기 위한 최고의 연구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 후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외국어 불안을 넘어서 각 언어 기술별로 외국어 불안을 조사한 연구들이 활발히 나오기 시작하였다(Chiang, 2006). 이러한 불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으로 일찍 시작한 읽기 불안(예: Saito, Horwitz & Garza, 1999), 쓰기 불안(예: Cheng, Horwitz & Schallert, 1999), 듣기 불안(예: Vogely, 1998) 등의 연구에 비해, **통역 불안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Chiang, 2006, 2009; Yan, 2007).



# 통역 불안

**통역 불안**(Interpretation anxiety)에 대한 초기 연구는 외국어 불안의 초기 연구의 흐름과 닮았으며 이는 구조의 모호성 (construct ambiguities), 즉 연구의 흐름을 명확하게 추적하기 어려운 것으로 특징지어진다(Chiang, 2006:2). 그 시기의 통역 불안 연구는 주로 전문 통역사의 통역 수행을 대상으로 하여 통역 스트레스(interpreting stress)와 통역 불안이라는 두 개의 용어를 혼용하였으며, 통역 불안을 일반적인 불안으로 여겨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Kurz(1997)는 Spielberger(1983)에 제시된 상태-성향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로 회의 통역사의 불안을 조사하였고, Moser-Mercer(2005)는 SATI 척도를 활용하여 원격 통역(remote interpretation)이 면대면 통역(live interpretation)에 비해 통역사의 불안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통역 불안

그 후 Chiang(2006)는 통역 불안이 일반적인 불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연구에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일반적인 불안 척도로 통역 불안을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통역 수업 불안 척도(Interpretation Classroom Anxiety Scale, ICAS)를 개발하였고 SATI 척도와 FLCAS 척도를 함께 활용하여 일반적인 불안, 외국어 불안과 통역 불안 세 가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결국 통역 불안은 일반적인 불안에 비해 외국어 불안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그는 통역 불안을 외국어 불안의 특정 상황 불안으로 간주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외, 제5의 언어 기술별 불안으로 다시 개념화를 하였다.

Chiang(2006)의 관점을 받아들여 통역 불안의 외국어 불안의 한 특정 상황 불안이라는 점에 착안한 Yan(2007)은 통역 수업에 맞춘 특정 언어 불안 척도를 개발하여 외국어 불안의 영향 및 구성 요소를 조사하였다.



# 통역 불안(한)

허지운(2016)은 FLCAS에 기반한 설문 조사를 통해 통번역대학원 학습자들이 수업 시 경험하는 학습 불안의 정도와 주요 유형을 조사함.

박혜경(2018)은 통번역대학원의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피드백이 학습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음.

홍설영(2019)은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한 통역 전공 신입생들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허지운(2016). 통역 수업 학습자 불안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제17권 1호, 한국번역학회. 171쪽~197쪽.

홍설영(2019). 통번역대학원 통역 전공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갈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17권 1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7쪽~243쪽.

박혜경(2018). 통역 피드백과 학습자 불안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제22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17쪽~143쪽.



03

연구 방법



#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Husserl(1859-1938)에 의해 제창되었다. 이는 여러 개인의 경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 연구 방법이다(신경림 외, 2004:234).

현상학적 연구는 말 그대로 **‘현상’**에 대한 연구이고,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현상은 **‘참여자의 체험(lived experience)’**이다.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명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나, 현상학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유기웅 외, 2012:60).

인간은 삶 속에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이러한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의 경험을 정확히 그리고 끝까지 탐구하여 그 의식들의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기존 경험 등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참여자의 경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현상의 본질**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입견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연구자 자신의 기존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을 **‘판단중지 (bracketing)’**라고 하며, 현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연구자의 태도를 **‘환원(reduction)’**이라고 한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가정과 선이해를 밝히며, 자료의 수집 과정이나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헌의 분석은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신경림 외, 2004:236).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연구 방법의 적합성

---

이와 같이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에 관한 연구 방법을 제공하고, 그 경험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기술을 통해 그 현상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통역 불안’이란 현상에 대한 연구이고,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현상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모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의 체험’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 기술을 통해 통역 불안이란 무엇인지, 즉 통역 불안이라는 현상의 본질적인 요소나 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



# 연구 참여자 선정

현상학적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선정 원칙과 다르지 않다.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리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경험을 했으며, 자신들의 과거 경험에 대해 반추해 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 중의 하나인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눈덩이 표집법은 최초로 선정된 1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추천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풍부한 사례를 수집하면 할수록 새로운 정보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특히 특정 경험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데 유리하다**(Patton, 1980:36).



# 연구 참여자의 정보

## A

11년,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출신, 한국 대학 석사 졸업

전시회 통역, 예능 프로그램 현장 통역, 비즈니스 회의 통역 등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녀가 비교적 긴 시간 동안(1개월-2개월)의 통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 B

12년, 비한국어 전공 출신, 한국 대학 석사 졸업, 박사 재학 중

현장 통역, 중국 정부 시찰 수행 통역, 온라인 수업 통역 등

같은 통역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 C

12년,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출신, 한국 대학 석사 수료

전시회 통역, 법정 통역, 파출소 통역, 비즈니스 회의 통역 등

비교적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정 통역과 파출소 통역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 특징적이다.

## D

11년,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출신

전시회 통역, 예능 프로그램 통역, 드라마 촬영 현장 통역 등

특히 연예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풍부한 중-한 통역 경험을 가진 대상이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면담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당 1~2회에 걸쳐 약 1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면담은 1대 1 온라인 영상 통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미리 반구조화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가 ‘중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낀 적 있었습니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포화)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이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연구 참여자의 추가적인 답변을 구하였다.

범위	내용
개인 배경	개인 정보(나이, 성별), 한국어 학습 경험
통(번)역 경험	통역 및 번역 경험, 통역에 대한 인식 및 견해
통역 불안 경험	통역 불안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생각, 통역 불안을 느꼈을 때 취했던 행동





# 자료 분석 방법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은 Van Kaam(1987), Giorgi(1985), Colaizzi(1978), Spigelberg(1975) 등 학자들의 의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 즉 통역 불안 경험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자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6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다.

**2단계**,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을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3단계**,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4단계**,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다.

**5단계**,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한다.

**6단계**, 선행 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 자료 분석의 예시

C

“이 통역은 대학교 4학년 첫 학기 때 맡은 무대 통역과 비슷한 건데 통역할 때 불안감을 많이 느꼈어. 뭐랄까? 1대1의 경우는 괜찮은데...말이 틀려도 수정할 기회가 있잖아? 근데 무대에서 통역하면 듣는 사람이 많아서 내 말이 틀릴까 봐 더 겁났어.”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

대중 앞에서 통역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

B

“(백화점 화장품의 행사 통역) 마이크를 들고 진행하는데 내가 통역한 말을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잖아. 그래서 발표 불안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그러한 불안의 느낌.”





04

연구 결과



## 연구 결과

통역 불안 양상: 32개의 의미 있는  
진술

통역 불안 원인: 87개의 의미 있는  
진술

129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총  
11개의 구성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구성된 의미를 다시 주제 범주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6개의 범주로  
정리하였다.

연구 문제	주제 묶음	의미 단위
통역 불안의 양상	정서적 불안	통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한다
	인지적 불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하얘진다
	생리적 불안	목소리가 떨리고 말실수가 많아진다
통역 불안의 원인	한국어 말하기 불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두렵다
	의사소통 불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 때문에 긴장된다
		대중 앞에서 통역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
		통역 실수나 실패로 인해 불안해진다
	통역 업무 관련 불안	사전 준비 없이 통역하게 되니 불안하다
		통역 시간의 압박감으로 인해 긴장한다
		전문적이거나 문화적인 내용을 통역하는 데 자신이 없다

## 통역 불안 경험의 구성 요소



# 연구 문제 1: 통역 불안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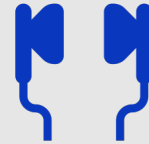
“통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한다”



정서적 불안



인지적 불안



생리적 불안

“목소리가 떨리고 말실수가 많아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하얘진다”



# 정서적 불안:

## 통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한다

참여자들은 통역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을 때 자신이 과연 통역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걱정 그리고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통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불안을 느꼈으며, 자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온갖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C

“전시회 현장에 가기 전에 정말 많이 불안했거든. 왜냐면 우선 그때 나는 내 한국어 실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시회는 조명에 관한 전시회였잖아? 그때 내가 (조명에 대해서) 아는 어휘가 전혀 없었어. 그래서 그들한테도 내 걱정을 먼저 얘기했어. 알바를 소개해준 선배들한테.”

“나는 OO언니한테 담당자에게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어. 예를 들어 이 메이크업 쇼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이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등등 물어봤어. 자료를 받고 나서 나는 단어 일일을 다 확인했고, 준비한 자료를 프린트해 가지고 현장에 가져갔어.”

B



# 정서적 불안:

## 통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한다

통역을 수행하기 전에 나타난 이러한 정서적인 불안은 연구 참여자의 통역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려운 통역 업무를 맡았을 때,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혹은 비슷한 통역 업무의 실패 경험이 있었을 때 등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참여자들에게 불안이 다시 찾아오기도 하였다.

C “법정 통역 실패로 인한 불안 때문에 파출소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말로 많이 긴장했어. 비슷한 환경이어서...전혀 다른 통역이었지만 법정 통역이 가져온 트라우마로 법정과 관련된 통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두려움이 생겼어.”

# 인지적 불안:

##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하얘진다

언어 불안은 교실의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끼친다(Tobias, 1986; Steinberg & Horwitz, 1986; MacIntyre & Gardner, 1989). Tobias(1986)는 불안이 언어 사용에 있어 일으키는 간섭이 주로 입력, 처리 및 출력의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입력 단계 혹은 전(前)처리(preprocessing) 단계에서 불안이 일으키는 간섭은 불안을 느끼는 이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걱정과 같은 업무 외의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서 업무 상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놓쳤을 때 일어난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역 과정에서 불안을 느꼈을 때 자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릿속에 텅 비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이로 인하여 통역해야 할 상대방의 말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C “ 실수가 지적된 후 내 집중력이 상실된 것 같았어. 그 법관 또는 그 한국 사람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했는데 근데 그때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그들의 말은 나의 머리에 들어가지 못했어. ”



# 인지적 불안:

##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하얘진다

또한 처리 단계에서 불안을 가진 사람은 기억력에 의해 무엇을 회상하는 능력과 입력된 내용을 재구조화하는 능력의 효율이 떨어진다(Tobias, 1986).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을 보면 그들이 긴장할 때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Horwitz 외(1986)에서 밝힌, 불안을 가진 학생이 시험을 볼 때 배웠던 내용을 제대로 상기하지 못한 ‘동결(freezing)’ 현상과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B** “시를 통역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 그분이 몇 마디의 시를 얘기했는데 나는 생각 난 표현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일상 언어로 통역했어.”

이처럼 통역 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지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그들의 통역 품질 저하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여유 있는 학생들에 비해 불안을 가진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보여 주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MacIntyre & Gardner, 1994).



# 생리적 불안:

목소리가 떨리고 말실수가 많아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으로 인해 자신의 말 속도가 빨라지거나 말더듬이 많아지거나 말을 반복하는 등 여러 가지 외적 증상이 나타났으며, 평소처럼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A

“나는 긴장하게 되면 말 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내 머릿속에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데도 있었어.”

“말더듬이 많아진 것 같았어.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이해를 못할까 봐.”

B

앞서 말한 이런 증상이 외현화되면서 연구 참여자들도 스스로 자신이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말 속도를 조절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적 암시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생리적 불안

목소리가 떨리고 말실수가 많아진다

A “

그때 나는 내가 긴장한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일부로 말 속도를 조절했어. 말이 느려진 후 뭔가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져서 내용을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불안도 점점 가라앉았어.

”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노력이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경우,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지 못했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더듬과 말실수로 인해 불안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

내가 잘못 통역한 부분이 지적된 후, 나는 많이 불안했어. 통역할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어. 그래서 나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다시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어.

B

”

# 연구 문제2: 통역 불안의 원인

## 1 한국어 말하기 불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두렵다

## 2 의사소통 불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 때문에  
긴장된다

대중 앞에서 통역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

대중 앞에서 통역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

## 3 통역 업무 관련 불안

사전 준비 없이 통역하게  
되니 불안하다

통역 시간의 압박감으로  
인해 긴장한다

전문적이거나 문화적인 내용을  
통역하는 데 자신 없다



# [한국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C

그때(대학교 3학년) 나는 내 한국어 매우 서툴렀다고 생각했어.

A

그 예능에서 중국어-스페인어를 통역해 온 선배가 나를 제작진에게 소개 시켜줬어. 그리고 나는 온라인 면접을 통해서 예능에 출연할 한국 가수의 통역을 하게 됐어. 근데 가기 전 일주일부터 엄청 불안해졌어. 아니, 내 한국어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

# [한국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원인 중에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바로 그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다. 하지만 참여자의 대부분은 첫 통역 업무를 수행했을 무렵에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을 취득했으며, 일부 참여자는 1년의 한국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면접을 통해 통역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어 불안과 외국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선행 연구에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다. MacIntyre, Noels & Clément (1997)에서는 외국어 불안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언어 능력의 수준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MacIntyre(1992)는 나아가 언어 불안과 객관적인 언어 능력 수준의 상관관계보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언어 능력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결국 참여자들의 통역 불안은 그들의 한국어 능력은 물론 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한국어 능력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 [한국어] 한국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두렵다

B

OO(동행 통역자)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무서운 편이야. 그래서 그때 OO가 내 통역을 어찌고, 어찌고 평가할까 봐 좀 불안했어.

한번은 나는 회사 대표님과 같이 한국의 한 방송국을 방문했어. 그 자리에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도 있었어. 그분이 그쪽 관계자들이 말한 한국어를 중국어로 통역하고, 나는 우리 쪽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중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기로 했어. 그쪽에서 먼저 통역을 했는데 그 한국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어에 능통했어. 그분이 통역한 중국어를 듣고 나는 갑자기 많이 불안해졌어. 그래서 내가 통역했을 때 자주 무의식적으로 그 분의 시선을 신경 쓰이게 된 거야. 그분이 조금이라도 난해한 표정이 보인다면 내가 바로 ‘잘못 통역했나?’하고 마음이 불안해졌어.

A

# [한국어] 한국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두렵다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한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통역할 때 다른 통역자가 같이 있는 경우, 혹은 두 개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관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이 더 높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역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통역 그 자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도 보였다.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같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처리 활동(task-irrelevant processing activities)이 높은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Eysenck, 1979:367). Ganzer(1968)는 청중이 존재하는 경우, 실험 참여자가 더 높은 시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을 밝혔다. Deffenbacher(1978)는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시험 불안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비평가 조건에 비해 평가 조건에서 수행하는 시간이 더 긴 것을 발견하였다.



# [의사소통]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때문에 긴장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앞에서 말을 할 때 불안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소위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은 주로 연구 참여자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이나 전문성을 가진 대상을 말한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개인 또는 집단은 참여자의 제2언어 즉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 “한번은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의 위원장님의 통역을 맡았는데 그분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셨는데도 내가 많이 긴장하고 불안했어. 뭐랄까? 그분이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통역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긴장해진 거였어. 통역이 틀리면 안 된다는 느낌..”

**C** “통역을 수행하기 전에 강의하신 교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대략 어떤 성격인지 알고 나서 불안의 느낌이 좀 줄어들 것 같았어.”

그런데 이러한 불안은 통역자가 발화자(수용자)에게 느끼는 친근감 혹은 그와의 거리감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발화자(수용자)와의 지위 차이, 낯선 발화자(수용자) 등의 요인은 연구 참여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현장에 가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친숙감을 가지려는 등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의사소통] 대중 앞에서 통역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

C “ (화장품 발표회 통역) 처음으로 맡은 통역이기도 하고, 그때 그 통역은 백화점에서 진행했는데 그때 내가 마이크를 들고, 그래서 내가 말한 내용은 전 백화점에 전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와야 했는데... 이게 약간 발표 불안의 일종인 것 같아. 뭐랄까?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의 그러한 불안이지. ”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대중 앞에서 통역하는 상황과 수업, 법정 등 공적인 상황에 통역할 때 더 높은 불안을 느꼈다고 하였다. 대중 앞에서 통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통역사에게 집중되어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모두의 주의를 끌게 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카메라 앞에서 통역한 적이 있는데...처음엔 이 파트가 없었는데 내가 다른 통역을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데려갔어. 그때 엄청 긴장해졌지. 방송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 D

# [의사소통] 대중 앞에서 통역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

또한 공식 상황에서 요구되는 형식적인 규칙 등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통역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격식성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이유 없이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법정이) 워낙 엄숙한 장소이잖아.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엄숙함을 느꼈어. 거기 법정의 색깔이 다 어둡고 장엄해서 이런 분위기는 워낙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어.

통역에서 마주치는 상황은 반드시 발화자, 통역자, 수용자 3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경우에 따라 1대1, 1대다 혹은 다대다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는 사전에 통역 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의사소통] 통역 실수나 실패로 인해 불안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화가 틀렸거나 부분적으로만 맞았다고 인지할 때가 있다. 이때 수용자가 알아듣지 못한 표정을 짓거나 다시 문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연구 참여자가 통역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된다.

“내가 통역한 내용에 앞뒤 모순된 부분이 있었나 봐. 그래서 한 측은 나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 방금 그렇게 통역했고 지금 통역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면서. 나 그래서 통역한 것이 틀렸구나 하고 그때부터 많이 긴장하게 되었어.”

B

“당시에 내가 사용했던 어휘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들려서 청증석에 있는 그 용의자의 친구가 바로 일어서서 내 잘못을 지적해 줬거든. 그때부터 내가 통역하는 말 한마디 한 마디에 매우 조심하게 되었고 통역할 때 자신감이 더 없어지고 목소리까지 떨렸어.”

C

# [통역] 사전 준비 없이 통역하게 되니 불안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접하게 되는 통역의 종류와 유형은 수없이 다양하며 그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통역 능력과 배경 지식 또한 달라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설령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해당 상황을 경험한 적은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통역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Cooper, Davies & Tung(1982)에서는 통역사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 관련 요인(task-related factors)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부족한 사전 안내와 과도한 업무량 등 관계자의 조직과 관련된 요인을 뜻한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와 같은 통역 훈련을 받지 못하고 실제 통역 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는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면 통역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상황에 당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통역] 통역 시간의 압박감으로 인해 긴장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역 과정에서 시간의 압박감으로 인해 높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전문적인 동시통역의 경우 보통 두 명의 통역사가 통역을 교차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와 같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행한 통역 업무는 대부분 통역자 한 명이 양쪽의 말을 모두 통역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발화자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 단계와 이해한 그것을 수용자가 원하는 해당 언어로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표현 단계 반복적으로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하게 된다.

**B** “내가 이 부분까지만 통역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미 뒷부분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부 내용을 통역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더 빨리 통역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간의 압박감을 느꼈어.”

**D** “한국어를 말할 때 ‘시간 벌기’ 그런 전략도 쓸 수 있잖아? 통역할 때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발화자가 말을 하자 수용자가 바로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내 통역을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바로 통역해 줘야 하는 느낌을 받았어.”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에게 짧은 시간 내에 모어가 아닌 한국어에서 의미적 또는 형태적 등가어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 과정에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껴질 수밖에 없다.

## [통역] 전문적이거나 문화적인 내용을 통역하는 데 자신이 없다

통역할 때 통역자가 발화자의 말을 듣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추출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출발어와 도착어에 대한 언어 지식은 물론 사회문화적 지식과 해당 분야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모두 개입된다. 통역자가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대로 통역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내용과 문화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통역했을 때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메이크업 통역이었는데 그때 내가 메이크업도 잘 안하고 화장품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 근데 이 업무는 OO언니가 소개시켜 준 거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통역을 나한테 던져 준 거였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정말 많이 긴장했어.”

B

“마침 그 자리에 담당자의 어머니도 계셔서 어머니가 현지 문화에 대해 많이 얘기하셨어. 그 어머니도 문화적인 얘기를 중국어로 표현하실 수 없어서 광동어로 썼는데 나는 워낙 그 현지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광동어로 들으니깐 더 이해가 안 됐어.”

C

# 결론

첫째, 한국어 고급 학습자에게 통역 불안은 매우 흔한 양상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역 준비 단계에서부터 통역 수행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불안을 느꼈으며, 이러한 불안의 양상은 크게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이라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사전에 더 많은 준비를 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대처를 하기도 했으나, 통역 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으로 인해 그들의 인지적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통역 내용을 놓치거나 말실수와 통역 실패 등 결과를 가져오면서 결국 자신의 한국어 통역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결론

둘째, 이 연구는 통역 불안이 외국어의 다른 언어 기술별 불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Chiang(2006)의 연구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모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은 한국어 불안, 의사소통 불안, 그리고 통역 업무 관련 불안 등 세 가지의 측면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가 마주치는 일반적인 한국어 말하기 상황과 달리 통역 업무에서는 학습자가 보다 다양한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통역 불안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서울대학교 양길류

